

# 에폭시수지 울산 가공공장 화재

## 구미 휴대폰 부품 공장에도 불 ... 화학공장 화재 사고 잇따라

화학공장의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.

8월14일에는 구미에 위치한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데 이어 8월15일에는 울산의 합성수지 가공기업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.

8월15일 오전 2시55분 경 울산 북구 달천동의 에폭시수지(Epoxy Resin) 가공기업에서 불이 나 1400만원 상당(소방서 추산)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.

공장 야적장에서 발생한 불은 에폭시 보드 찌꺼기와 야적장 인근의 공장동을 태웠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8월14일 오후 10시50분 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 휴대폰 부품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20여분만에 진화됐다.

공장 직원 박모씨 등 2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부상했으며 공장 250㎡와 부품이 불에 타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.

경찰과 소방당국은 휴대폰 부품 가공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8/16>